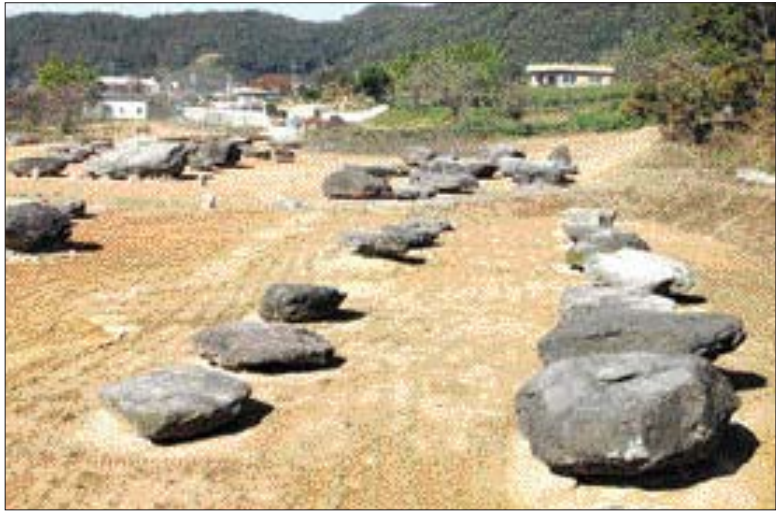


장흥 선사유적 공원 ‘반쪽개장’

수질 오염 우려 원래보다 면적 대폭 축소
고인돌 일렬 배치 등 “무늬만 공원” 비난



장흥군 유치면에 선사문화유적 공원이 준공됐으나 부지가 좁아 149기의 고인돌 상당수가 일렬로 배치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어렵사리 조성된 선사유적 공원이 문화재 보호와 관광지 조성 가운데 어느 한 가지 특성도 살리지 못했다”며 “고인돌의 대표 고장으로서의 명성이 희석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장흥군이 최근 유치면에 장흥담 수몰지구에서 발굴된 고인돌 유적을 모아 선사문화유적 공원을 조성했으나 부지 면적이 협소해 공원으로서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반쪽 개장’이라는 지적이다.

장흥군은 지난 2002년부터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장흥담 수몰지구내에서 발굴된 149기의 고인돌 유적(석실과 석곽, 배바위모형 고인돌)을 이전할 ‘선사문화유적 공원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장흥군은 유치면 송정리 방향의 동산과 용문리 일대 9만9천여㎡ 부지, 신평리 3만3천여㎡ 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 환경영향 검토를 의뢰했으나 수질 오염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과 수자원공사는 이에 따라 부지를 대폭 축소해 유치면 신평리 일원 9천441㎡ 부지에 선사문화유적 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문화재 전문가들은 “공원 부지가 너무 좁아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인돌이 일렬로 배치되는 등 이름만 문화유적 공원”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특히 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5년간 사업을 끌어오면서 장흥군과 수자원공사가 수질보전을 위한 계획을 내놓지 못해 지역을 대표할 만한 문화유적 조성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민 길도(46·장흥읍 건산리)씨는

강진군 ‘참다래 산업 육성’ 22억 투입

내년부터 3년간 생산시설 현대화·신품종 보급

한 우량품종으로 갱신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금다래와 홍다래는 당도가 기존 품종보다 월등히 높을 뿐 아니라 1ha당 수확량도 2배 이상 많은 고부가치 신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군은 현재 21.2ha인 참다래 재배 면적을 3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진군이 내년부터 3년간 22억을 투입해 참다래 재배농가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신품종 보급을 추진한다.

강진군은 최근 농림부가 선정한 참다래 육성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비 가림과 관정·관수, 방

풍 등 당도 높고 품질 참다래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투자가 가능케 됐다.

또 한국 참다래 유통사업단과 출하 약정을 체결해 안정적인 유통망도 확보했다.

이밖에 기존 참다래 품종을 금다래와 홍다래 등 당도와 생산성이 월등

구례 야생화 압화 대전 전시회 인기

‘녹차미인 보성쌀’ 대통령상 수상

보성군 대표쌀 브랜드인 ‘녹차미인 보성쌀’이 지난 11일 열린 ‘2007년도 전국 고품질 쌀생산 우수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부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에서 40점의 전업농 쌀이 출품됐으며 ‘녹차미인 보성쌀’이 전문기관과 외부심사위원 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전에서 열린 구례 야생화 압화 특별전시회가 큰 인기를 끌었다. (사진)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전종합청사 중앙홀에서 개최된 구례 야생화 압화 전시회에는 대전·충남 시·도민과 학생 등 2만 여명이 방문했다.

또 600여명이 야생화 압화 체험관에서 압화 열쇠고리와 핸드폰 고리를 직접 제작하는 등 야생화 압화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또 전시회장 인근에서는 감과 밤, 토종꿀 등 구례지역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해 2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D-13일 "21세기 배양 강력이 품"은 이바진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온 국민의 힘으로 유치합시다

EXPO 2012
Yeosu International

2012 여수세계박람회
마케팅 전략

- ▶ 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우수기업 선정
- ▶ 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우수기업 선정
- ▶ 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우수기업 선정
- ▶ 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우수기업 선정
- ▶ 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우수기업 선정

땅끝 배 모양 조형물 ... ‘희망호’ 설치

郡, 송지면에 ... 50m 데크 등 관광 명소화

크를 설치하는 등 주변 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국도의 끝인 해남군 송지면 땅끝에 시작을 상징하는 조형물(사진)이 설치됐다.

해남군은 땅끝 탐에 해양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 배 모양의 데

크(deck)를 설치하고 ‘희망호’로 명명했다.

또 땅끝 탐 주변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탐에서 바다 쪽 희망 샘까지 내려갈 수 있는 길이 50m의 데

해남군은 땅끝을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땅끝 탐 주변에 소원의 벽과 산책로를 설치키로 하고 상징 조형물 공모에 나섰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장흥다목적댐 백서 사진 “무단 도용” 논란

작가 마모씨 “65장이 내 작품” ... 郡, 책자 회수

최근 발간된 ‘장흥다목적댐 백서’에 실린 사진들이 무단 도용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장흥군은 장흥담과 댐 주변의 과거 및 현재 모습을 기록한 ‘장흥다목적댐 백서’를 지난 8월 발간했다.

153쪽 분량의 이 백서는 장흥군이

2천430만 원을 들여 조선대 산업연구원에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모두 300권이 발간됐다.

그러나 장흥 출신 마모씨의 사진 일부가 무단으로 백서에 실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장흥군이 책자를 회수했다.

문제가 된 사진들은 마씨가 그동안

댐 주변을 찍은 사진을 모아 발간한 사진집 ‘아, 물에 잠길 내 고향’에 실렸던 것과 동일하다.

마씨는 “조선대 산업연구원 측이 아무런 협의 없이 사진집에 실린 사진 65장을 백서에 사용했다”며 “장흥군과 대학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대 산업연구원 측은 무단 도용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협의 없이 사용한 사진은 17장”이라고 주장했다.

/장흥=김정욱기자 kykim@

‘유자넙치’ 상품화 나선다

고흥해양수산사무소-전남대 어류 상품개발 협약

여수해양수산청 고흥해양수산사무소가 ‘유자넙치’ 상품화 사업에 착수했다. 고흥사무소는 최근 전남대 수산생명의학부와 유자를 활용한 기능성 어류(넙치) 상품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삼지구엽초와 녹차, 백년초 등 기능성을 높이는 약초를 활용해 넙치를

생산한 경우는 있으나 유자를 이용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고흥사무소는 최근 금산면 어류양식어촌계에 유자성분 투입 비율이 2.5~7%인 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을 선정, 본격적인 양식에 들어갔다.

생사료에 유자를 잘게 갈아 섞어 시험양식을 해본 결과 광어 육질이

쫄깃하고 향긋한 맛이 나는 등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소는 이번 협약으로 유자넙치의 기능성 성분과 효과를 학술적으로 입증하고 지리적 표시 등록 등 브랜드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고흥사무소는 유자넙치의 상품화가 성공할 경우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흥지역은 1천800여 농가가 전국의 25%인 410여ha를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 유자 주산지다.

/고흥=주지중기자 gjuu@